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기회”

LX,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홍보 부스로 참여

인공지능(AI) 등이 이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축소될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될까?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LX)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3월21일~23일까지(3일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D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마련됐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공공 발주처와 민간 기업이 직접 만나는 자리로 꾸려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LX는 홍보 부스를 통해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부스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채용설명회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 실제로 이날 부스에서 재조명된 3D

엔진기술 전문기업 '이시스', 드론 개발·DB 구축 기업 '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와 LX가 마련한 '해의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캄보디아에 진출해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또한, AR·VR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제이토드' 역시 'LX공간드림센터'를 통해 인터랙티브 키즈파크 '플레이타카'를 2곳에 마련한 데 이어 전국 4개 지역에 확대하고 있다.

국내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는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LX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LX의 사업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창학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며, "새로운 영역에서 세계를 매혹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키는 공간정보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LX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월2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

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입사를 위한 채용설명회를 마련해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며, "홍보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물 사랑' 환경보호 앞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공단체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22일 전주 시 삼천동에 위치한 세내고 부근에서 전주 시 주관으로 열린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하천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해 지자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날이다.

봉사활동에는 전북은행 이상란 부행장, 임재원 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삼천동 천변을 돌며 주변에 버려져 있는 각종 쓰레기 및 오염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섰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물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2023년까지 로봇산업 시장 15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 전문기업 20개 육성·제조로봇 70만대 보급
서비스로봇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중심
민간 확산 위해 로봇 렌탈·리스서비스도 마련

정부가 2023년까지 로봇산업 시장을 15조원 규모로 키우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을 20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현재 32만대에 불과한 제조로봇을 70만대까지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한국 로봇산업에 세계 4위권으로 키우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로봇 보급·확산을 통한 제조 혁신 가속화 ▲돌봄·웨어러블(Wearable)·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우선 108개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25개 업종 6개 공정(총 150개 공정) 중에 108개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력 부족 문제를 상시로 겪는 뿌리, 섬유, 식·음료산업부터 63종의 로봇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열고 "로봇 투입이

시급한 뿌리, 섬유, 식·음료산업 등 필요한 업종에 정부가 7500대를 보급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보급한 로봇들이 민간에서 자율 확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부가 50%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로봇 렌탈·리스 서비스도 도입한다. 은행·캐피탈사 등과 협력해 내년부터 관련 금융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비스로봇의 경우 미래에는 제조로봇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전망이 밝다.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돌봄은 취약계층의 식사·이동·배변 등을, 웨어러블은 근로 등을 돕는다.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육성을 주도한다. 20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5000대를 먼저 보급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에서 로봇 효용성을 향한 의심이 크다"면서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아 실제로 써본 뒤 활용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민간에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의료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술로봇 등이다. 한국산(產) 제품을 향한 수요자인 병원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이 숙제다. 병원과 로봇제조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물류는 물류회사에서 실내·외 배송로봇 등을 쓸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과도 연관이 있어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 효용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로봇산업진흥원에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도 마련하기로 했다.

로봇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제어기·자율주행 센서·스마트 그리퍼 등 3대 핵심부품을 개발, 지원한다.

금액 기준 70~80%까지 국산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로봇소프트웨어(SW) 플랫폼, '잡는 기술' 관련 SW, 영상 정보 처리용 SW, 인간-로봇 간 상호작용 SW 등도 국산화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현재 5조 7000억원 규모인 로봇산업 시장을 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조로봇은 32만대에서 70만대까지 보급하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은 현재 6곳에서 20곳까지 늘린다.

/뉴시스

전북농어촌공사 이강환 신임 본부장 취임

지역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경험 두루 갖춰

한국농어촌공사 제15대 전북지역본부장으로 이강환(56) 본부장이 취임했다. 이강환 신임 본부장은 1987년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부처장, 경영지원처장, 제주시농업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사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공사 최고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본부와 고창지사 등 고향에 재직할 당시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리더십으로 공사 내



부평가 최우수 부서를 연속 수상한 바 있고, 격식없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강환 신임본부장은 "고향에서 공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강환 본부장은 1983년 1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고급경영자과정수료했으며, 대통령 표창, 장관표창2, 시장표창6 등을 받았다. 또한, 배우자 김유미씨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영태 기자



썬하림이 지난 22일 임직원 500여명이 나서 익산시 금마면 금마저수지 주변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하림, 익산 금마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실시

썬하림이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하림은 이날 임직원 50여명이 나서 익산시 금마면 금마저수지 주변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림은 금마저수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세계 물의 날 기념 의미를 실천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대를 구성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역 환경정화활동을 펼치

며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날 하림은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강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깨끗한 익산시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시로부터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정호석 상무는 "하림 임직원들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를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